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	11.26(목) 16:00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		
책임자	탁윤성 과장(2156-9780)	담당자	최정운 사무관(2156-9782)
배포일	2015.11.26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대

제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우리은행 「Global Network 200」 개점 축하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5.11.26(목) 우리은행에서 개최되는 우리은행 「Global Network 200」 개점 행사에 참석하여
 - 아시아, 북미,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, 아프리카, 중남미 등 전세계 23개국에, 200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,
 - 이렇게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은행의 가치를 제고하여 민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
- 이날 개점 행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, 저금리·고령화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뀔에 따라, 금융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사업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
 -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
 - 한편, 해외사업을 도모하고 이끌어 나가는 주역은 금융회사이므로
 - 글로벌 역량강화, 현지기업 대상 영업강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

□ 아울러, 함께 개최한 우리은행과 청년희망재단의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기부* 협약식에 대해,

* Global Network를 활용한 해외점포 금융실무(OJT)·금융연수 등 제공

○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